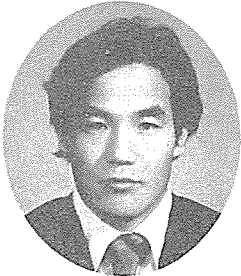


물리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학술대회를 마치고

배 성 수



오늘 재무부장이 작성한 정산서를 박태준 총무부장, 김수진 사업부장, 홍성연 재무부장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 학술대회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학술대회 계획, 집행, 결과확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었을때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지난 9월 25~26일까지 기쁜마음으로 임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정진우회장님을 비롯한 중앙회장단 및 이사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특히 대구에 계시는 양 대의원의장님의 소상한 배려와 고무 때문이라 생각하고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드린다. 멀리서 가까이에서 만사를 접어두고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회원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대구 경북지회에 속한 모든회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희생과 봉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에도 감사를 드린다.

지난 1월 대구 경북지부회 82년도 제 1차 집담회를 개최하므로 모든것이 시작되었다. 그때 집행위원회(구성:재무, 사업, 학술, 총무, 회장)에서 미리 준비한 학술대회 개최 계획이 발표되고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스스로 지부회원전체가 후원자가 되고 지역독지자들의 도움으로 대회를 치를 예산확보가 이루어졌다. 예산확보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우선 회원 개인의 찬조금을 500원이상으로 결정했다. 이어서 개업하고 있는 분들이 솔선 찬조를 더 하겠다는 자발적인 제의가 예산확보의 숨통을 열고 최저 50,000이상으로 결정되어 회원이 참여하는 찬조금은 약 70여만원이 되었다. 집행위원회는 대회장을 경주로 하느냐 계명대학교 동서문화관, 대구대학교 시청각교육실로 하느냐를 미정으로 두고 중앙회에다 대회준비, 진행, 관광 등의 예산을 260여만원으로 신청했더니 배승학 총무이사님이 내려오셔서 80만원 밖에 보조할 수 없으니 그 범위 안에서 대회를 치러주십사하는 주문이었다. 260여만원 대회를 80만원으로 하라는 분부는 집행위원 모두를 아연케했다. 그 모임에서 양 대의원의장님의 지원말씀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산이었다. 양 대의원의장님은 중앙회에 더 가까운 분이었다. 이로써 예산중액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졌다. 그러나 두분이 짜여진 중앙회 예산의 균형을 깨지 않으시려는 면으로 환원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다.

대구보건전문대학 김종욱 재단이사장님 대구대학교 이태영 총장님의 찬조와 동방보조기 이이진 사장님 일본OG 회사의 마스모도 영업부차장의 원조는 집행위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매일 집행위원회가 소집되고 각각 맡은바 임무에 대한 중간확인보고가 이루어졌고 어려웠던 여러가지 상황에서도 집행위원들의 희생과 협조로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 질책하고 엄하게 독려하고 직선적이며 칭찬을 잘 할줄 모르는 본인의 결점을 집행위원들이 잘 소화해 주어서 짐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세부계획에 따른 잡자리, 식사, 회의장, 손님접대 및 의견 관광 등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인 예약 주문에 들어갔다. 대회장을 결정하기위해 7월말경 대구대학교 이태영 총장님을 만나 장소 사용의 일과 축사를 부탁드렸더니 장소를 더 좋은 8월말에 완공예정이던 중강당에서 하라고 허락해 주셨고 축사는 그때 계획이 어떻게될지 모르니 다시 확인을 해주길 바란다고 하셨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잡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처음 금호호텔 옆 한독여관에서 적당한 숙박료가 제시되어 방 45개를 예약하므로써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대회를 5일 앞두고 한독여관에서 방이 비지않아 곤란하다고 전갈이 왔다. 갑자기 집행위원회의 비상이 걸린셈이나 토요일 저녁인데다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잘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 곳이 그리 흔하지 않아 애를 먹던 중 동대구 호텔로 결정되고 당일 저녁은 거기도 부족해서 대령장여관에 방 7개를 더 얻어간신히 잡자리를 해결했다. 대회장은 300석이 넘고 가장 회원수가 많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대형버스 2대를 전세내어 내려오는데 개최식 시작시간에는 1대 밖에 도착하지않고 아무리 계산해도 그 넓은 회의장은 반밖에 차지않을 것같아 걱정이었다. 또 머리 이상회 대구직할시장 홍선희 대구직할시 의사회장 이태영 대구대학교총장 등은 참석한다고 알려왔고 표면적인 우리의 열세를 보이고 싶지않고 개최를 앞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격려사 축사를 할 내빈 축하차온 손님 등은 총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한 준비를 다하고서도 제시작에 시작할 수 없었던 그때..... 30분 늦게 시작했는데 그 30분은 그렇게도 긴 시간이던지.

본격적인 학술발표가 진행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볼 수 있었던 우리들의 단합된 모습은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추억 속에 간직되게 되었다.

26일 아침 해인사관광을 떠나기위해 전세차량을 1대만 준비했으나 부족하여 급히 1대를 더 불러 결국 대형버스 5대가 동원되어 해인사로 출발했다. 25일 저녁 정기대의원총회를 끝내면서도 실감되지않던 참석숫자가 대형버스 5대로 관광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우리들의 참석과 합심이 이번대회를 이루었다고 깨닫게 했다. 관광을 끝낸뒤 회원들의 열굴엔 해냈다는 자신감과 이제 더 큰것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얻은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이번대회는 대구 경북지회 회원들만의 노력이 아니고 대한물리치료(본협회 경북지부회장정학술대회장)사 협회 회원 하나가 쌓은 거대한 탑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큰 탑을 쌓을 것을 확신한다.

근방추의 역할

어경홍* 박찬의**

고찰 11. golgi tendon organ (Ib, GTO)

golgi tendon organ (Ib)은 근육에 있는 또 하나의 감각 기관으로서 긴장 (tension)에 민감하며 근육을 수동적으로 신장 (stretching)시켰을때나, 근육의 수의적 수축에 의해 자극되어 진다. 자극 유발은 수동적 신장보다는 근육의 수의적 수축에 의해서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즉 신장 (stretching)보다는 수축 (contraction)에 더 민감하다. 이두박근 (Biceps brachii)의 GTD의 예를 들어보면 이두박근 자체는 억제시키고 삼두박근 (triceps brachii)은 촉진시키는 역할하게 된다.

<정리>

부 착 위 치	근육의 긴 (tendon)근처
감 작 반 응	근육에 생성된 긴장 (tension)에 대해 가장 민감.
배 열 방 법	근육과 직렬 (series)로 연결
자 극 인 자	근육에 가해진 수동적 신장에는 높은 역치 (threshold) 근육의 수축에는 낮은 역치
촉진 (facilitation)	GTO가 속해있는 길항근을 촉진
억제 (inhibition)	GTO가 속해있는 주동근을 억제

Granit에 의하면 GTO (긴장수용기; tension receptor)는 방어기전 (protective mechanism)으로서 작용하며 근육의 지나친 신장이나 수축에 대해서는 대항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GTO는 tonic이나 phasic한 성질로 보기는 어렵고 긴장의 tanc increase와 변화율에 모두 반응하므로 static한 면과 dynamic한 양면의 성질로 보는것이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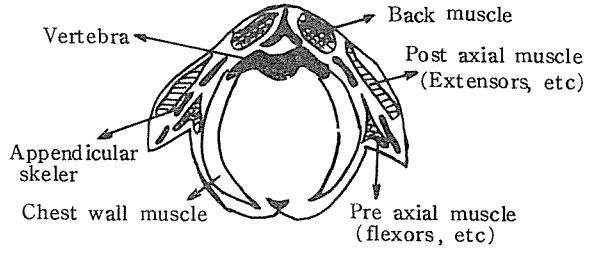
고찰 12. group 1 muscle 과 group 2 muscle

지금까지 굴곡근에 관계된 사항만을 다루었고 외전근 (abductor) 내전근 (adductor) 및 회전근 (rotator)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multi axial joint (예, 고관절, 견관절 등)에서 작용하는 근육은 물론 복합작용 (combined action)을 가지는데 대흉근 (pectoralis major)과 같은 근육의 경우 견관절의 굴곡근으로써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내전근 및 내회전근으로도 작용한다. 고로 내전근이나 내회전근으로 작용하는 것은 "굴곡근 (flexors)"의 형태로 정의되어진다.

발생학적 (embryological)으로 근육은 척수위치 (spinal

root level)과 일치하는 myotome에서 생기게 된다. 발달이 계속되면서 어떤 myotome은 다른 것과 합쳐지고 일부는 퇴화되기도 하는데 따라서 한 근육은 하나 이상의 spinal segment의 지배 (innervation)를 받게 된다. Myotome은 근육으로 변화발달되면서 한가지 혹은 두가지 방법으로 정렬되며 골격의 앞 (ventral) 혹은 pre-axial쪽에 있는 myotome은 flexor로 되어지고 plexus의 앞분지 (anterior division)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내전근이나 내회전근도 굴곡근과 같은 mass myotome에 의해 형성되므로 같은 신경지배를 받게 된다. 고로 patten은 굴곡근 (flexors), 내전근 (adductors) 및 내회전근 (internal rotators)를 group 1 muscle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뒤 (posterior) 혹은 post-axial쪽에 있는 myotome은 extensor로 되어지고 plexus의 뒷분지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신전근 (extensors), 외전근 (abductor) 및 외회전근 (external rotators)는 group 2 muscle로 분류 하였다.

고찰 13. tow joint muscle 과 Hybrid muscle

<Two joint muscle>

Two joint muscle (두관절근육)은 한관절에서는 굴곡되거나 다른 관절에서는 신전되어 group 1 muscle일수도 있고 group 2 muscle일수도 있다. 그러나 두관절에서 모두 굴곡되던지 모두 신전되던지 하면 각각의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비복근 (gastrocnemius)이 경직되거나 짧아진 경우 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경축성장애 (spastic disorder)로 인한 보행장애 (gait problem)를 일으킨 환자의 치료시 짧아진거나 혹은 경축성이 있는 비복근의 치료시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반사계통 (reflex system)에 의한 발바닥에 압력 (pressure)이 가해지면 extensor thrust response를 나타내는데 이는 아마 모든 plantar flexors의 참여 때문일 것이며 특히 비복근은 슬관절위에 기시 (origin)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즉 plantar flexor (extensor 로써)에 계속적 신장을 유지하면서 ankle 근육의 co-contraction을 얻어 내면서 ankle dorsiflexor를 유도해볼 수 있다. 이는 슬관절을 잘 굴곡 (flexion)시키고 발바닥에 압력 (pre-

ssure)를 가하지 않으면 가능한데 이때 슬관절을 신전하게 되면 즉시 positive supporting reflex가 나타나므로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비복근(gastrocnemius)는 dorsiflexor를 유도할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한편 two joint muscle은 표면(superficial)에 위치하며 one joint muscle 보다 성질상 phasic한 편이다. 따라서 두 관절 근육을 활성화시키면 한관절근육 보다는 환자치료에 필요한 maintain activity나 tonic activity의 효과를 덜 갖게 되는것 같다. 비복근은 group 1 muscle에 속하는데 이유는 "flexor"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며 "physiological flexor"이라 한다.

비복근의 activation에 의한 치료적 난제(complication)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그것은 one joint 이상을 포함하여 항상 움직임을 복잡(complicate)시킨다.

2) 주로 phasic muscle로 작용하므로 tonic activity에 쉽게 사용되지 않는다.

3) 비복근을 작동(activation)시키기 위한 자세는 하지의 전체적 extensor synergy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Hybrid muscle>

two joint extensor의 보다 적절한 표현은 two joint hybrid muscle이다. (Hibrid란 기시(origin)이나 구성(composition)이 혼합되었거나 특히 근육작용이 혼합된 것을 의미한다). 임상적 문제는 two joint hybrid muscle에서 생기는데 예를 들면 gastrocnemius, rectus femoris, hamstring muscles 등이다. 이중 gastrocnemius(비복근)이 가장 큰 방해(offender)인데 특히 spasticity의 문제를 다룰때, two joint hybrid muscle을 group 1 muscle로 규정하여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것 같다.

group 1 muscle은 group 2 muscle에 길항적(antagonic)이며 group 1 muscle이 activate될때 reciprocal inhibition(상호억제)에 의해 group 2 muscle을 억제시킬수 있다.

대흉근(pectoris major)은 group 1 muscle에 속하므로 이 근육이 activate되면 삼각근(middle deltoid)는 억제될 것이다.

→ 계속

* 연세대학교부속병원

**고려보건전문대학

회장단 동정 및 협회현황

1982. 8. 5 북부분회 모임에 참석. (지부 회칙 시안 전달)
참석자: 배승학 총무이사

1982. 8. 25 협회 사무국 전화 설치 (전화번호 722-0447)

1982. 9. 4 제 5차 정기이사회 개최
참석자: 정진우, 백진, 양성주, 김용주, 배승학, 오경환, 강정구, 함용운

감사: 최치욱

안건: 1) 대의원 정기총회 준비

2) 198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3) 198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4) 1982년도 포상자 심의

5) 지부회칙 및 지부설치안 인준의 건

1982. 9. 25-26(2일간) 제 4차 학술대회 및 제 18차 정기총회 개최

1 일제→장소: 대구대학교 강당

참석자: 정진우의 212명

일정: 학술발표회, 회원총회, 대의원 정기총회

2 일제→장소: 해인사

참석자: 정진우 외 182명

일정: 회원단체대회 및 가야산 해인사 관광

1982.10. 9 서울남부지부 집담회 및 회원총회에 참석
참석자: 강정구 부회장, 배승학 총무이사

1982년도 세입예산(안) 총회통과

관항부	1983년도예산	산출근거	'82년도비중(+/-)
년회비	10,800,000	12,000×900 = 10,800,000	+1,376,000
찬조금	5,000,000	회보광고: 500,000 회지광고: 1,500,000 연수교육 문제점 2,000,000 운영비 찬조 1,000,000	+2,398,900
잡수입	300,000		+ 79,309
이월금	335,247		+ 134,241
합계	16,435,247		+3,988,450

1983년도 세출예산(안) 총회통과

관	항목	'83년도예산	근거	82년도비중감	
경상비	급여비	4,000,000		+2,700,000	
	사무및문구비	600,000		+ 34,110	
	통신·우편·전화비	600,000		+ 258,363	
	교통비및활동비	960,000		- 195,000	
	출장비	300,000		+ 230,000	
	회의비	420,000		+ 171,300	
	비품비	1,000,000		+ 752,000	
	관리비	600,000		+ 600,000	
	사업비	학술대회및총회비	700,000		-1,206,990
		기술교류비	700,000		- 225,000
연수교육및집담회비		1,000,000		+ 769,040	
회보및회지발간비		700,000		-2,575,000	
친목도모비		200,000		- 32,550	
홍보비		600,000		+ 600,000	
지부할당금	회원수첩제작비	500,000		+ 500,000	
	예비비	3,240,000		+1,945,425	
총계	16,435,247		+3,988,450		

회관건립 기금(82년도)

항목	82년도결산
전년도기금	3,000,000
입회비	2,815,000
영구회비	240,000
찬조금	660,000
총계	6,715,000

82년도 세출결산 총회통과

관	항 목	82년도 예산	근 거	82년도 예산	증 감
경 상 비	급여비	1,300,000		1,600,000	- 300,000
	사무용품및문서비	565,890		600,000	- 34,110
	통신비	341,637		444,000	- 102,363
	교통비및활동비	1,155,000		1,260,000	- 105,000
	출장비	70,000		300,000	- 230,000
	회의비	248,700		360,000	- 111,300
	비품비	248,000		1,400,000	-1,152,000
사 업 비	학술대회및총회비	1,906,990		1,560,000	+ 346,990
	기술교류비	925,000	연세비 550,000 세연참가비 300,000 아연비 75,000	810,000	+ 115,000
	연수교육및집담회비	230,960		800,000	- 569,040
	회보및회지발간비	3,275,000		3,100,000	+ 175,000
	친목도모비	232,550		500,000	- 267,450
	지부할당금	1,294,575		864,000	+ 430,575
	예비비	317,248		303,006	- 14,242
이월금	335,247				
총 계	12,446,797		13,901,006	+ 1,454,209	

82년도 세입결산 총회통과

관항목	82년도 예산	근 거	82년도 예산	증 감
회비	9,424,000			
찬조금	2,601,000	회보광고 400,000 회지광고 2,500,000 연수, 문제집발간 : 1,000,000 운영비찬조 : 1,000,000	4,900,000	-2,298,900
접수입	220,491		600,000	-379,309
이월금	201,006		201,006	
합 계	12,446,797		12,901,006	-454,209

- 우연이 ₩ 5,000 허준복 ₩ 5,000 이석순 ₩ 5,000
- 임수희 ₩ 5,000 김정숙 ₩ 5,000 조은미 ₩ 5,000
- 손인호 ₩ 5,000 김선희 ₩ 5,000 이인숙 ₩ 5,000
- 김양선 ₩ 5,000 김정애 ₩ 5,000 김학재 ₩ 5,000
- 조영희 ₩ 5,000 이순자 ₩ 5,000 주 민 ₩ 5,000
- 이영순 ₩ 5,000 김태열 ₩ 5,000 김화겸 ₩ 5,000
- 김대영 ₩ 5,000 임봉선 ₩ 5,000 진용철 ₩ 5,000
- 배노갑 ₩ 5,000 박내용 ₩ 10,000 박승구 ₩ 15,000
- 박상우 ₩ 15,000 Total : ₩ 725,000

- 기타 찬조 -
- 동방보조기 ₩ 1,200,000
 - 대구보건전문대학 이사장 ₩ 200,000
 - 대구대학 총장 ₩ 200,000
 - 경북보조기 ₩ 100,000
 - 대구보건 물리치료과 동문회 ₩ 50,000

1983년 회관건립 기금 세입예산(안) 총회통과

항 목	83년도 예산안	근 거
전년도기금	6,715,000	
이월금		
입회비	3,000,000	10,000원 × 300명
연구회비	1,200,000	12,000원 × 10명
회관건립기금 찬조금	2,000,000	회원기부 500,000 (1,000원 × 500명) 카드수입 1,000,000 카노오메타 300,000 트리거-차트 200,000
총 계	12,915,000	

< 학술대회 찬조금 납부자 >

- 양성주 ₩ 100,000 배성수 ₩ 55,000 이정옥 ₩ 50,000
- 박래준 ₩ 50,000 김수진 ₩ 50,000 홍성연 ₩ 50,000
- 하찬수 ₩ 50,000 신경식 ₩ 50,000 박 영 ₩ 20,000
- 이희수 ₩ 20,000 박윤기 ₩ 20,000 김중선 ₩ 10,000
- 이영준 ₩ 20,000 허완열 ₩ 10,000 홍두환 ₩ 5,000
- 서태수 ₩ 5,000 윤영옥 ₩ 5,000 조규보 ₩ 5,000

< 신입회원명단 >

1982.8.1~10.4 현재까지

- 신승의 (No. 1108) 황기현 (No. 822) 최우선 (No. 1127)
- 심정길 (No. 730) 안택수 (No. 839) 성치도 (No. 1084)

- 동남보건전문대학 -

- 이귀숙 (No. 1050) 지은옥 (No. 1123) 신상훈 (No. 995)
- 김미성 (No. 1081) 강남미 (No. 1125) 장미순 (No. 1046)
- 조경희 (No. 1204) 안경희 (No. 1217) 이종관 (No. 1058)
- 조명희 (No. 1196) 박성일 (No. 1009) 이덕경 (No. 1228)
- 전병순 (No. 1189) 추상연 (No. 1183) 정은선 (No. 1215)
- 원오란 (No. 1107) 김숙경 (No. 1033) 윤혜련 (No. 1175)
- 김명희 (No. 1219) 유연영 (No. 1177) 김완옥 (No. 1026)
- 김승연 (No. 1147) 문혜정 (No. 1090) 서효원 (No. 1224)
- 박상범 (No. 1000) 류정숙 (No. 1135) 백금희 (No. 1109)
- 지남자 (No. 1180) 최연호 (No. 1021) 최동훈 (No. 1198)
- 류미영 (No. 1187) 차영미 (No. 1148) 민경태 (No. 1104)
- 조기욱 (No. 1095) 이지영 (No. 1208) 신유화 (No. 1151)
- 윤성욱 (No. 1200) 김경란 (No. 1030) 이강수 (No. 1240)
- 손미향 (No. 1192) 김향주 (No. 1015) 이경옥 (No. 971)
- 송기영 (No. 1211) 이상경 (No. 985)

이리원광보건전문대학 -

중철 (No. 1199) 유병에 (No. 1067) 장명자 (No. 986)
 경애 (No. 1120) 오홍선 (No. 1145) 최광준 (No. 1001)
 영란 (No. 1114) 김명자 (No. 1132) 변정인 (No. 1062)
 성기 (No. 1195) 조충현 (No. 1105) 최임순 (No. 1197)
 남순 (No. 1082) 두정민 (No. 1004) 서규원 (No. 1136)
 호용 (No. 1040) 백사현 (No. 966) 박쌍순 (No. 1225)
 기업 (No. 1212)

지산간호전문대학 -

인숙 (No. 973) 박기옥 (No. 978) 박경애 (No. 982)
 미진 (No. 987) 이미원 (No. 992) 김미현 (No. 1005)
 혜련 (No. 1010) 이혜선 (No. 1022) 장영애 (No. 1034)
 옥화 (No. 1041) 황현숙 (No. 1045) 조미란 (No. 1047)
 대성 (No. 1055) 정순이 (No. 1055) 정귀분 (No. 1064)
 영희 (No. 1087) 윤행일 (No. 1096)

< 영구회비 납부자 >

소영 (No. 96) ₩120,000

< 회보 광고비 >

한판매상사 ₩20,000

< 회지 광고비 >

학서림 ₩100,000

< 회비 납부자 >

희의순 (No. 582 80,81년) 신승이 (No. 835 82년)
 지규호 (No. 123 82년) 우기중 (No. 851 82년 미취업)
 김정란 (No. 299 82년) 김옥란 (No. 868 82년)
 김춘숙 (No. 298 80,81,82년 미취업)
 김정숙 (No. 869 82년 미취업) 박경희 (No. 519 82년)
 김중현 (No. 872 82년) 백윤경 (No. 837 82년 미취업)
 기현숙 (No. 882 82년 미취업)
 전영혜 (No. 846 82년 미취업)
 최두례 (No. 903 82년) 김순경 (No. 923 82년)
 한민숙 (No. 904 82년) 현명호 (No. 930 82년)
 채승동 (No. 914 82년 미취업) 한기룡 (No. 217 81년)
 송정미 (No. 830 82년) 변성호 (No. 482 82,83년)
 서일순 (No. 699 81,82년 미취업)
 김윤태 (No. 489 81년) 채수성 (No. 160 82년)
 채수성 (No. 160 82년) 이호근 (No. 662 82년)
 김근조 (No. 471 82년) 이안균 (No. 695 81,82년)
 이영란 (No. 509 82년) 김숙자 (No. 728 82년)
 박경순 (No. 589 82년) 김대숙 (No. 735 82년)
 전건식 (No. 790 82년) 박원희 (No. 754 82년)
 이태영 (No. 833 82년) 김명훈 (No. 785 82년 미취업)
 이동엽 (No. 883 82년) 김근숙 (No. 800 82년)
 권윤애 (No. 962 82년) 이상순 (No. 808 82년 미취업)
 남혜란 (No. 674 81,82년 미취업)
 박경희 (No. 818 82년) 양택용 (No. 483 82년)
 성기훈 (No. 142 82년) 하영희 (No. 424 81년)
 이종운 (No. 843 82년) 신혜경 (No. 426 79,80,81,82년)
 안윤진 (No. 527 82년) 김병호 (No. 451 82년)
 박명희 (No. 821 82년) 박인애 (No. 459 81,82년)
 김자혜 (No. 60 82년) 이미자 (No. 463 81,82년)
 홍우태 (No. 625 82년) 우광석 (No. 957 82년)
 명원숙 (No. 526 80,81,82년 미취업)
 김미순 (No. 562 81년 미취업 82년)
 고은주 (No. 569 82년) 김인선 (No. 544 82년)
 민금옥 (No. 606 81,82년) 김희순 (No. 612 80,81,82년)
 최순옥 (No. 702 81년 미취업 82년)

전건희 (No. 627 80,81,82년)
 김춘숙 (No. 6 78,79,80,81 미취업)
 김현숙 (No. 629 80,81,82년) 안민규 (No. 153 82년)
 진은실 (No. 661 82년) 이석재 (No. 213 81,82년)
 김영민 (No. 669 81,82년) 임성수 (No. 214 82년)
 심정길 (No. 730 80,81,82년) 문수진 (No. 218 82년)
 윤미희 (No. 742 81,82년) 오영희 (No. 274 82년 미취업)
 윤환미 (No. 763 81,82년) 구찬서 (No. 302 79,81,82년)
 이항덕 (No. 857 82년) 이연진 (No. 307 81,82년)
 김영현 (No. 858 82년) 이윤희 (No. 308 81,82년)
 현 숙 (No. 862 82년) 이재갑 (No. 321 80,81,82년)
 장문숙 (No. 865 82년) 황향숙 (No. 364 82년)
 이종애 (No. 326 81,82년 미취업)
 김주화 (No. 892 82년) 진명학 (No. 908 82년)
 이경혜 (No. 411 81,82년) 이미경 (No. 928 82년)
 박행자 (No. 949 82년) 조만복 (No. 961 82년)
 조경희 (No. 440 82년) 박옥중 (No. 243 82년)
 최미숙 (No. 685 82년) 장인수 (No. 631 82년)
 최성환 (No. 131 77,78,79,80,81,82년 미취업)
 이승택 (No. 408 82년 미취업)
 한동직 (No. 118 79,80,81,82년) 진희선 (No. 891 82년)
 김홍배 (No. 445 79,80,81,82년) 윤영자 (No. 312 82년)
 안택수 (No. 839 82년) 권춘숙 (No. 692 82년)
 이윤미 (No. 313 78,79,80,81,82년 미취업)
 변옥희 (No. 686 82년) 민영학 (No. 396 82년)
 정태훈 (No. 884 82년 미취업)
 이길자 (No. 111 81,82년) 박종란 (No. 613 82년)
 정창양 (No. 716 81,82년 미취업)
 장익선 (No. 446 81,82년 미취업)
 이수동 (No. 729 81,82년) 장경숙 (No. 194 82년)
 최영범 (No. 897 82년 미취업)
 최규연 (No. 732 82년) 박재열 (No. 273 82년)
 강인숙 (No. 819 82년 미취업)
 이동현 (No. 710 82년) 변성래 (No. 565 81,82년)
 이선배 (No. 633 82년 미취업)
 박정복 (No. 655 82년) 최동근 (No. 646 82년)
 박경옥 (No. 480 82년) 이병은 (No. 560 80,81,82년)
 최화숙 (No. 506 81,82년 미취업)
 박윤진 (No. 67 81,82년) 유인규 (No. 35 82년)
 임광희 (No. 449 82년) 홍정선 (No. 470 82년)
 박필숙 (No. 575 82년) 김정주 (No. 444 82년)
 여현주 (No. 647 82년) 이미숙 (No. 528 82년)
 서순애 (No. 694 82년) 김수인 (No. 376 82년)
 김여경 (No. 303 82년 반액 완불)
 정영부 (No. 946 82년) 천경희 (No. 491 82년)
 박진령 (No. 894 82년) 김영희 (No. 81 82년 반액 완불)
 장문현 (No. 684 81,82년) 임인혁 (No. 309 82년)
 이수준 (No. 136 81,82년)
 최재필 (No. 399 81,82년) 김순자 (No. 205 82년)
 배 령 (No. 751 81,82년) 조경애 (No. 400 82년)
 박혜숙 (No. 443 82년) 임경애 (No. 336 82년)
 박순홍 (No. 19 82년) 민선학 (No. 332 82년)
 이행규 (No. 964 82년) 김수미 (No. 875 82년)
 신윤경 (No. 844 82년) 박내진 (No. 761 82년)
 김경계 (No. 636 82년) 홍영경 (No. 778 82년)
 박순애 (No. 873 82년) 김경선 (No. 890 82년)
 이종숙 (No. 604 80년) 차기봉 (No. 428 82년)
 이 선 (No. 752 81년) 황병용 (No. 624 82년 미취업)
 이은희 (No. 374 80년,81,82-미취업)

김혜영 (No. 585)	80년	김향미 (No. 402)	82년
우윤숙 (No. 911)	82년	이한석 (No. 902)	82년
정창희 (No. 406)	82년	임연희 (No. 478)	81,82년
강정구 (No. 195)	82년	박미원 (No. 909)	82년
김선영 (No. 759)	82년	주경애 (No. 366)	82년
문애식 (No. 556)	82년	송연옥 (No. 382)	82년
박은미 (No. 484)	82년	조영현 (No. 339)	80,81,82년
안현숙 (No. 409)	82년	오미석 (No. 435)	82년
임수희 (No. 805)	82년	김춘복 (No. 372)	82년 미취업)
조규보 (No. 557)	82년	김인숙 (No. 45)	82년
박래준 (No. 228)	82년	김시정 (No. 896)	82년
임봉선 (No. 810)	82년	강선옥 (No. 831)	82년
남용덕 (No. 723)	81년 미취업)	심규만 (No. 362)	80년
진용철 (No. 736)	82년	심홍섭 (No. 305)	82년
박경란 (No. 823)	82년	전상명 (No. 316)	80,81년
정미옥 (No. 640)	80,81,82년	어경홍 (No. 322)	82년
이현희 (No. 403)	82년	주영미 (No. 407)	82년
안효숙 (No. 356)	78,80,81,82년 미취업)		
황기현 (No. 822)	82년	최경임 (No. 772)	81년
이재혁 (No. 696)	81,82년 미취업)		
서경춘 (No. 413)	81,82년	이은주 (No. 328)	78년
민영기 (No. 899)	82년	양경희 (No. 913)	82년
최봉희 (No. 479)	81년	홍해성 (No. 270)	78년
박지환 (No. 635)	82년	표성봉 (No. 129)	82년
이복희 (No. 2)	82년	유미옥 (No. 246)	82년 미취업)
은여복 (No. 490)	82년	전상명 (No. 316)	82년
김은실 (No. 453)	82년	구애련 (No. 42)	82년
김상진 (No. 953)	82년	명철제 (No. 255)	82년
정애옥 (No. 607)	80,81,82년	신정옥 (No. 497)	81년
현성민 (No. 648)	82년 미취업)	서태수 (No. 681)	82년
이영란 (No. 931)	82년	박영 (No. 185)	82년
강후남 (No. 457)	82년	신경식 (No. 549)	82년
김용주 (No. 393)	81,82년 미취업)	이미경 (No. 864)	82년
김정현 (No. 209)	82년	박흥기 (No. 216)	82년
양임규 (No. 333)	82년	김영석 (No. 486)	81,82년
김용애 (No. 746)	82년	김인성 (No. 503)	82년
문성숙 (No. 276)	79,80,81,82년	고경철 (No. 492)	82년
장세업 (No. 236)	77년	김기호 (No. 346)	82년
고영숙 (No. 566)	82년	김인숙 (No. 937)	82년
김성갑 (No. 944)	82년	최중숙 (No. 820)	82년
강덕원 (No. 619)	82년	박영식 (No. 813)	82년
박혜경 (No. 392)	80년	박종해 (No. 82년)	82년
김인태 (No. 608)	82년	민경애 (No. 719)	81,82년
김진자 (No. 880)	82년	양승준 (No. 536)	80,81,82년
강형근 (No. 854)	82년	김경남 (No. 524)	80,81,82년
김명자 (No. 512)	80,81,82년 미취업)		
이인태 (No. 812)	82년	오태식 (No. 423)	82년
현상미 (No. 314)	82년	김정희 (No. 504)	82년
김혜선 (No. 711)	82년	곽대덕 (No. 804)	82년
강신은 (No. 817)	82년	김경희 (No. 587)	82년
이주옥 (No. 855)	82년	손토비아 (명예회원)	82년
박철 (No. 948)	82년	구희서 (No. 191)	82년
이중숙 (No. 618)	81,82년	김민숙 (No. 617)	82년
김호선 (No. 783)	81,82년 미취업 반액)		
이동숙 (No. ?)	80년	유병갑 (No. 66)	81,82년
오복희 (No. 939)	82년	이희숙 (No. 915)	82년
천경희 (No. 491)	80년	김여경 (No. 303)	80년

- 가) 집담회 개최 2회
 - 1회 : 레이저 스티플레이션, 124명 참석
 - 2회 : 머스쿨로스켄테탈 에벌루에이션 및 세연참가 보고
- 나) 스포츠 임상물리치료의학회 발족지원
- 2. 회원친목사업
 - 가) 바둑대회 개최
 - 나) 회원 친목야유회 개최 (장소: 태능푸른동산)
- 3. 국제교류강화
 - 가) 일본 회장단 초청 연석회의 개최 (장소: 가든호텔)
 - 나) 세계물리치료사 총회에 한국대표단 파견 (장소: 스톡홀름)
 - 다) 아시아 물리치료 연맹 이사국회의 참석
- 4. 회원복지 사업
 - 가) 전국 15개지부조직 결성완료로 회원단합과 회원지위향상을 위한 발판구축
 - 나) 전북지부, 전남지부, 경북지부 (2회) 등을 방문하여 지부회원들의 사기양양과 지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서울, 경기지역의 지부는 수시로 방문하였음.
- 5. 타단체와의 교류
 - 가) 임상스포츠 의학회 학술대회 참석 (2회)
 - 나) 물리치료사 및 교육교사 연수회 (대구대학) 참석
 - 다)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학술대회 참석
- 6. 수익사업
 - 가) 트리가 포인트 차 - 트, 고니오 - 미터 제작 판매중
 - 나) X - 마스 카드제작 판매
- 7. 불우이웃돕기
 - 가) 1981년 연말에 문화방송사에 모금액 300,000원 전달
- 8. 협회 사무기능 강화
 - 가) 각종 서식 및 각종 서류 완비
 - 나) 각종 운영규정의 통폐합 제정비

〈 1983년도 사업계획안〉

- 1. 교육강화사업
 - 가) 교육위원회안에 교육과정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검토하고 협회의 통일된 최저 교육과정안을 작성한다.
 - 나)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6개월간 임상수련 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노력한다.
 - 다) 단기 (3-5일간), 중기 (2-3주간), 장기 (1-2개월) 코스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며, 가능한 외국유명감사를 조빙한다.
 - 라) 신입회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 2. 회원친목사업
 - 가) 각 지부활동에 중앙회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나) 각지부 대항 체육대회의 개최
- 3. 국제교류 강화
 - 가) 해외 개발공사와 협조하여 해외취업의 문호확대개발
 - 나) 회원의 외국회원과의 펜 - 팔 교류촉진 및 외국협회와 협회간 교류강화
- 4. 수익사업계획
 - 가) 고니오 미터, 트리가 포인트 차 - 트, 크리스마스 카드 등의 제작판매를 계속하여 협회기금 증대에 노력
 - 나) 문제집 발간판매
- 5. 회원 취업 확대
 - 가) 병·의원의 홍보강좌로 물리치료실 증설 유도
 - 나) 각종 기관지등에 홍보강좌로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

〈 1982년도 사업보고서〉

1. 교육강화사업

확대에 노력

다) 의보, 자보, 산재등의 물리치료 숫가의 현실화를 촉
구 회원의 취업도 확대와 대우 개선에 주력

< 학술대회 참가자명단 >

성명	소속지부	성명	소속지부	성명	소속지부	성명	소속지부
1. 양성주	경북지부	53. 이항우	전 북	105. 박순홍	서울중부	162. 황삼선	경 남
2. 배성수	"	54. 김홍배	경 남	106. 안민규	서울남부	163. 이주옥	"
3. 이정옥	"	55. 박영식	강 원	107. 민영학	서울북부	164. 이성희	"
4. 박태준	"	56. 이호근	전 남	108. 김인태	서울동부	165. 장수희	경 남
5. 김수진	"	57. 배용숙	"	109. 황성수	"	166. 문영숙	"
6. 홍성연	"	58. 유형근	강 원	110. 엄미란	인 천	167. 장경숙	서울동부
7. 하찬수	"	59. 홍정옥	전 남	111. 김정숙	서울동부	168. 이동현	"
8. 신경식	"	60. 김은숙	"	112. 박홍기	"	169. 김기업	경 남
9. 박 영	"	61. 김혜선	경 남	113. 구애련	서울서부	170. 김미영	서 울
10. 이희수	"	62. 채원영	경 북	114. 오경환	성 남	171. 박경순	충 청
11. 박윤기	"	63. 은가숙	"	115. 이현일	인 천	172. 이재형	전 북
12. 김중선	"	64. 정 면	경 남	116. 이연진	서울남부	173. 박종철	"
13. 이영준	"	65. 양명옥	"	117. 이미자	"	174. 이종숙	서울남부
14. 허완열	"	66. 최성환	"	118. 최우선	"	175. 이정배	"
15. 홍두환	"	67. 최승선	경 북	119. 원희석	"	176. 김호봉	충 청
16. 서태수	"	68. 장영대	"	120. 박명일	"	177. 양택용	"
17. 윤영옥	"	69. 이미란	인 천	121. 이행규	서울중부	178. 김근조	"
18. 조규보	"	70. 천봉술	경 남	122. 김명자	서울남부	179. 오매식	"
19. 이석순	"	71. 배인숙	"	123. 이근환	인 천	180. 김경제	서울중부
20. 우연이	"	72. 이영미	"	124. 백 진	인 천	181. 홍정선	서울북부
21. 허춘복	"	73. 이현문	"	125. 강정구	서울중부	182. 이한석	서울서부
22. 조은미	"	74. 조만복	"	126. 어경홍	서울서부	183. 이재학	서울북부
23. 임수희	"	75. 김영찬	"	127. 이정근	"	184. 박찬의	"
24. 김정숙	경북지부	76. 이상조	"	128. 김상천	"	185. 김명수	인 천
25. 이인숙	"	77. 김영철	"	129. 전덕례	"	186. 김수인	성 남
26. 손인호	"	78. 이정희	경 북	130. 염명애	"	187. 유인규	서울북부
27. 김선희	"	79. 정진우	서울북부	131. 성인신	"	188. 황환익	서울동부
28. 김학재	"	80. 도현숙	경 북	132. 김경희	수 원	189. 이현희	"
29. 김양선	"	81. 주 민	"	133. 박경희	수 원	190. 조영현	서울서부
30. 김경애	"	82. 안경희	서 울	134. 이희숙	수 원	191. 조명희	"
31. 주 민	"	83. 김용주	경 남	135. 광대덕	"	192. 최재청	서울북부
32. 이경희	"	84. 이휘준	경 북	136. 김명희	서 울	193. 송미숙	"
33. 이순자	"	85. 박형준	"	137. 안윤진	충 남	194. 박옥화	"
34. 김화점	"	86. 채수성	충 청	138. 김완옥	서 울	195. 백혜경	"
35. 조영순	"	87. 신흥철	전 북	139. 박은희	경 남	196. 조희주	"
36. 김태열	"	88. 전건식	충 청	140. 김혜순	경 남	197. 구연업	서울중부
37. 김대영	"	89. 조경희	전 북	141. 이종운	충 청	198. 김숙경	서울서부
38. 임봉선	"	90. 권춘숙	"	142. 박정기	전 남	199. 권오란	서 울
39. 진용철	"	91. 변옥희	"	143. 최재련	경 북	200. 정은선	"
40. 배노갑	"	92. 진희선	"	144. 김미숙	"	201. 김명희	"
41. 박내용	"	93. 안택수	"	145. 김영애	"	202. 박만자	서울북부
42. 박승구	"	94. 이승택	"	146. 김대성	경 남	203. 최태임	서울남부
43. 박상옥	"	95. 권영옥	"	147. 경봉수	서울남부	204. 한경수	"
44. 이소영	전 북	96. 박명숙	서 울	148. 이상빈	"	205. 강은숙	인 천
45. 김윤태	전 남	97. 김영옥	수 원	149. 황현교	경 남	206. 노경영	"
46. 김순옥	서 울	98. 최경자	경 북	150. 노영철	"	207. 강정구	서울중부
47. 문용주	경 남	99. 서갑우	"	151. 광상채	"	208. 김순경	인 천
48. 홍성균	"	100. 노석린	경 남	152. 염현섭	"	209. 정신숙	"
49. 이준희	"	101. 윤행일	"	153. 임운철	"	210. 방미라	"
50. 서명숙	"	102. 최화숙	전 북	154. 김승인	"	211. 구임순	"
51. 윤은순	인천지부	103. 함용운	성 남	155. 김정숙	"	212. 서영범	"
52. 남성우	경 북	104. 최치옥	서울중부	156. 장정훈	전 남	213. 성영희	"
				157. 박종주	경 남	214. 김경애	"
				158. 신은범	"	215. 김미성	"
				159. 이현옥	"		
				160. 배승학	서울북부		
				161. 이영입	경 남		

木神의 노래

민영학

밤이 황혼스러진 언덕을 덮어주면
 숲속 하늘의 별들로 가득 차 출렁이고
 꽃나무마다 맺힌 푸른 별빛이
 바다로 흐르면
 사랑하느니라
 내마음에 나직이 켜는
 유성의 불꽃을 보아.
 조종조종 밤바다를 건너
 어둠을 휘어휘어히 휘젓다
 회색의 도시를 끌고가는 나비떼는
 가을 꽃가게 두어송이 사루비아로
 피고지고
 나는 시방 지하도 층계에 앉아
 침묵으로 오선지를 오르내리는
 이방인이야.

자정이 지나면
 木神의 노래는
 가난한 詩人에게도 어둠의 잔을
 들게하고
 우리는 이제 비로소 심연의 눈을 떠
 神처럼 사랑한다.
 생명의 힘이 잠시 쉬는
 영원한 죽음으로
 산이 되고 강이 되고 바람이 되어.....

△詩作노트▽

어느날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을 홀로
 걸다가 바람소리같은 거로 전연되는 木
 神들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실로 오랫동안
 들어보는 순수의 소리였다. 인간의 귀가
 멀리 가지 않으면 들을수 없는 참으로 순수
 하고 기묘한 함창이었다. 이제 우리도 우
 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면을 훌훌 벗어
 버리고 神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모두들 사
 랑해야겠다.

(신경선병원물리치료실장, 신구동문화회장)

충청지부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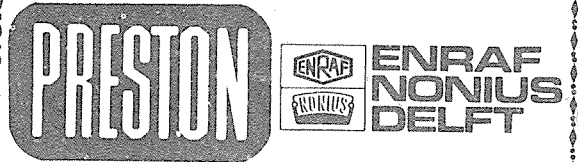


충청지부 82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일시 : 1982년 10.23일 오후 3시~82.10.24.오후 9시
 내용 : 23일

- 정기총회 - 1) 82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 8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3) 기타 안건토의

- 학술대회 1) 뇌졸중에 관한 고찰 - 채수성
 2) 안면신경마비 - 양택룡
 3) Low back pain - 김인선
 4) 골절의 개념 및 골절환자에 관한 물리치료 - 김근조
 5) Cervical - Lumbar Disc - 채수성

24일
 야유회 : 용인자연농원 → 민속촌 → 삼교천 → 온양
 현충사 → 대전



물리치료기구제작, 수입 판매.
 Medelec, A Vickers Medical Co.
 EMG 수입판매.

새한販賣商社 金 東 赫

110 서울特別市 鍾路區 東崇洞 1의 31
 MEDICAL SUPPLY CENTER BLD.
 電話 서울(02) 762-5659

求人案内

자 격 : 1) 물리치료 면허 소비자 (경력자 우대)
 2) 남자 (병역필자, 면제자)
 구비서류 : 자필 이력서 1통
 접수처 : 협회사무국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36
 신한병원내)
 접수마감 : 1982. 11. 15 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198~36(신한병원내)
 사단 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724-0926, 4707